민주당 "여권 후보" 견제…국민의당 연대 놓고 온도차

반기문 오늘 귀국…각 정파 속내는?

호남중진 연대 가능성 열어놔
안철수 자강론 내세워 부정적
인명진 "매달리지 않는다"
바른정당 영입 가장 적극적

1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에 대해 각 정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견제에 들어간 상태다. 문재인 전 대표와 대선 주자 지지도 선두를 다투고 있는 반 전 총장의 귀국은 그 자체로 민주당에 위협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 전 총장이 제 3지대에 머물면서 정치권의 새판짜기를 성공시킬 경우 그 파괴력은 더욱 커질 수 있어 긴장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민주당은 반 전 총장이 참여정부 때 장관을 지냈음에도 여권 후보로 가두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문 전 대표가 지난 8일 "반 전 총장 쪽은 정권 교체는 아니지 않으냐"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호남지역 정치인은 반 전 총장의 영입이나 연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자강론을 내세워 부정적이다.

유력한 당권주자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반 전 총장 등 충청권과의 '뉴DJP(김대중·김종필)연합'에 관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승용 원내대표 등 다른 호남 중진들도 반 전 총장과의 연대론에 대해 정체성 검증을 전제로 한 연대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반면,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선거를 보면 스스로 믿지 않는 정치세력에 국민이 신뢰를 준 적이 없었다"며 "스스로 정당과 정당의 대선후보가 자신감을 가질 때 그때 국민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반 전 총장 영입에 공을 들여왔던 새누리당은 반 전 총장만 바라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당내 분란을 해결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에 들어올 것이란 기대도 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오히려 추가 탈당을 걱정하는 만큼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때문에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반 전 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저와 우리당은 저렇게 반 총장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우리 당이 먼저 바로 서고요"라며 "우리 정책과 이념에 맞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탈당 세력인 바른정당은 반 전 총장 러브콜에 가장 적극적이다.

당 대주주인 김무성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 전 총장 행보에 대해 "바르게 정치하는 정당에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이란 베이스 없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국민 지지율이 높은 반 전 총장이 우리 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당을 바르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반 전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0%"라며 "그분의 평소 정치철학이나 인적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대통령이 되려면 정당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정당을 선택한다면 바른정당과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이 귀국 후 회동할 것으로 알려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반 전 총장과 연대 가능성이 있어 행보가 주목되는 인사다. 손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의 향후 행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7공화국'을 내세우며 '제3지대론'을 강조하고 있어서 반 전 총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손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소중한 외교적 자산이다"라고 말한 바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반 전 총장의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마포구 트라팰리스에서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인맥·MB맨 양대축에 충청권 의원들 물밑 지원

■반기문을 돕는 사람들
김숙·오준·곽승준 등 참여
노신영·한승수 등 멘토그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1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반 전 총장을 도와 대선에서 뛸 조력자들의 면면이 관심이다. 크게 볼 때 반 총장과 업무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외교관 출신그룹, 그리고 이명박(MB) 정부 인사들과 충청권 의원들을 아우르는 범여권 정치인 그룹으로 구분된다.

외교관 출신그룹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력자로 꼽히는 인물은 김숙 전 주(駐) 유엔대사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반 전 총장의 대선캠페인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과 오준 전 주 유엔 대사, 김봉현 전 호주대사가 외교관 출신 조력자들로 꼽힌다.

외교관 후배이면서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심윤조 전 오스트리아 대사, 반 전 총장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동문인 박진 전 의원도 지원그룹에 속해있다.

일선에 나서지 않으면서 반 전 총장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원로 멘토그룹'이 있다. 노신영 전 총리와 한승수 전 총리, 신경식 헌정회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여서 눈길을 끈다. 먼저 곽승준 고려대학교 교수는 반 전 총장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다. 곽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활약했던 언론인 출신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두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가세하고 있다. 역시 언론인 출신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은 홍보와 관련한 기획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의원의 경우 주로 충청권을 중심으로 김종필 전 총리와 가까우면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정진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경대수·박덕흠·이종배 등 충북지역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뛰고 있다. 충남지역의 성일종 의원도 물밑 지원을 하고 있다. 충청권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도 지원을 공개적으로 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요절 안타까움에 우울한 '네 그루의 나무'

김은영의 '그림 생각'

(171) 에곤 쉴레

지난 해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표지그림은 에곤 쉴레의 작품 '네 그루의 나무들'이다. 채식을 하면서 점차 나무가 되어가는 주인공의 마른 육체와 영혼을 상징하는 듯 처연한 느낌을 주는 나무그림은 소설과 잘 어우러졌지만 에곤 쉴레의 작품인 것은 뜻밖이었다. 소녀들의 도발적인 초상은 물론 적나라한 인체를 표현한 작품으로 재판정까지 서야했던 화가를 향한 선입견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며칠 전 관람했던 영화 '에곤 쉴레 : 욕망이 그린 그림'에서 그가 나무와 풍경을 그리게 되었음직한 이유가 살짝 비친다. 작품의 모델들마다와 염문을 뿌렸던 자유분방한 화가가 부잣집 딸 요조숙녀와 결혼하게 되고 아내인 에디뜨마저 작품의 대상으로 대하려 하자 "누드 말고 나무나 풍경 같은 것을 그리면 안되냐"며 거절하는 장면이 나온다. 쉴레는 아내의 충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오스트리아 여러 도시 풍경은 물론 앙상한 줄기에 위태롭게 서있는 가을나무와 겨울나무들을 다수 그려왔지만 영화라서 이 대목이 더 극적으로 전달되었던 것 같다.

에곤 쉴레(1890~1918)의 '네 그루의 나무들'(1917년 작)은 유럽 전역에 퍼진 독감으로 세상을 떠나기 일 년 전에 그린 작품이다. 28세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는 안타까움이 더해져서인지 스러져가는 저녁놀, 키 큰 네 그루의 나무들이 산줄기와 언덕에 기대 서 있는 듯 더없이 우울한 풍경이다.

전통적인 회화에 염증을 느꼈던 쉴레는 다니던 빈 예술아카데미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예술가 그룹'을 창설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당시 오스트리아의 개혁적인 미술을 이끌었던 클림트를 만나 세대를 뛰어넘어 교유하기도 했다. 쉴레의 히스테릭한 선, 구불구불한 인체 묘사 등 새로운 형식을 격찬했던 당대의 거장 클림트는 어린 쉴레가 훌륭한 화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로잉을 구입하기도 했고 후원자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클림트의 모델을 소개받아 쉴레가 함께 작업했던 발레리를 그린 작품이 그 유명한 '죽음과 소녀'(1915~1916년 작)이다.

에곤 쉴레 작 '네 그루의 나무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반기문 동생·조카 뉴욕 연방 법원에 기소

베트남 경남기업 소유 빌딩 매각 과정 뇌물 혐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 사법당국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이 이 돈을 받아갔으나, 이 관리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기상씨 부자와 해리스에게 적용된 혐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원도용 등이다. 이들 외에 우상(존 우)이라는 인물도 FCPA 위반 모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어떤 식으로 가담했는지는 적시되지 않았다.

주현씨는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서 체포됐다. 반기상씨와 해리스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FBI는 해외부패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최고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고, 돈세탁 혐의는 최고 징역 20년도 가능하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도운 대변인은 11일 이에 대해 "총장님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전혀 아는 바 없었을 것이고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 전 총장은 12일 오후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가장 먼저 해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